

#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양상과 결정요인에 대한 종적연구(제 2 보)

정 수 진 · 이 은 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The Change of Clothing Expenditure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A Time-series Analysis (Part II)

Su-Jin Jung · Eun-Young R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4. 8 접수)

### Abstract

Clothing consumption expenditure (CSX) data of Korean consumers during the period of 1965 to 1993 were analyzed by time series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current income and CSX of the year before showed most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current CSX. This means that the absolute and permanent income hypotheses can be accepted in case of clothing expenditures. However the effect of income decreased as the economy developed. The relative price of clothing had weak or no influence on clothing expenditures. It was also found out that CSX of the year before, the change of income, relative price of clothing were the factors that affected clothing expenditures.

From the estimation of Houthakker-Taylor state adjustment model, a negative stock coefficient was obtained. That is, clothing is subject to an inventory effect and Korean consumers regard clothing as one of the durable goods.

To define whether clothing is a "luxury" or a "necessity", income and relative price elasticity of clothing expenditures were estimated. Income elasticity of clothing is slightly below 1.0 in case of national aggregate expenditures, and slightly above 1.0 in case of urban consumers' expenditures. Income elasticity has declined over time. Meanwhile the coefficient of price elasticity is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 relative price of clothing have little connection with clothing expenditure.

### I. 서 론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경제적 발전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도 양적인 면에서의 증가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피복은 음식이나 주거와는 달리 실용적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표현적 기능까지 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 필수품만으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특징을

\*본 논문은 1997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피복소비에 관한 소비자의 소비행태와 의식은 다른 비복에 대한 소비에 비하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전체 경제가 겪어온 큰 변화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에 있어 단순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다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볼 때, 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비복별 소비보다는 전체 소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민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정학,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가계지출구조의 변화와 각 지출비목별 소비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거나, 가계지출비목의 잉겔 계수와 탄력성 등을 구하는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잉겔계수나 한계소비성향에 있어 뚜렷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 피복비는 보다 뚜렷한 추이를 나타내는 식비나 주거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비중을 차지해 왔다. 김영숙, 왕인숙(1989)의 연구 등이 피복비에 대한 소비행태 변화를 고찰하고 있고, 또 비복별 소비함수를 계산하는 여러 연구에서 피복비에 대한 소비함수가 간략하게 언급되고는 있으나, 자세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연구들은 표본조사인 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체 민간경제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가계를 소비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점점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가는 피복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의류학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시경제적 관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복비 지출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행하는 종단적 연구로 진행하며, 제량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의 소비함수론을 도입하

여 피복 소비지출을 설명하고, 피복소비 지출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한다. 둘째, 피복의 중분류 군별 소비함수를 구하여 각 피복 품목별 소비지출의 특징을 밝힌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의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것이며, 피복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거시적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도출될 회귀모형은 향후 소비자들의 의류구매 행태를 여러가지 거시 경제지표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형을 통한 예측의 결과는 생산자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 1)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에 대한 어떤 상품의 수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의 개념이 사용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1% 변화할 때, 수요가 몇 %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앞에서 말한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양(+ )의 소득탄력성을 갖는다. 그러나 열등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음(-)의 소득탄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상품을 정상재와 열등재로 분류하는 것 이외에도, 소득탄력성을 통해서 우리는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소비의 반응정도를 보아, 대체로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사치품으로, 1보다 작은 소득탄력성을 가지는 상품은 필수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Dardis et al., 1981).

#### 2) 수요의 가격탄력성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 사용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원래 전통적 수요곡선에서

한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갖는다. 하지만 과시적 소비현상을 나타내는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기도 한다.

수요의 탄력성은 가계소득에서 상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변화가 소비자의 가계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도 가격탄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쌀과 같은 필수품의 가격탄력성은 작고, 귀금속과 같은 사치품의 가격탄력성은 크다. 따라서 소득탄력성과 마찬가지로 각 상품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함으로써 그 상품이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복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 내외를 나타내지만, 품목에 따라 어떤 피복품목은 상당히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는 고가의 상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또한, 피복은 필수품이지만 동시에 그 종류와 품질에 따라 사치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상품특성을 갖는 피복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피복이 전체 시장에서 어떤 성격을 지닌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 2. 소비함수론

소비함수(consumption function)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소비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를 말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소비함수 이론은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상품의 재고 효과를 계산하는 데 유용한 동태적 소비함수인 Houthakker와 Taylor의 상태조절 모형이 본 연구에서 피복재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용되었다.

### 1)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

Keynes에 의하면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이다. 이것이 절대소득가설로서, 절대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취득한 소득, 즉 당기소득이다.

그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데 소득증가분의 일부분만이 소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of consump-

tion)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며 소득이 증가하면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하게 된다. Keynes 소비함수에 의하면 평균 소비성향은 한계 소비성향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진다.

$$C_t = \alpha + \beta Y_t$$

$$\alpha > 0, 0 < \beta < 1$$

$C_t$ : 소비지출  $Y_t$ : 가처분소득

위의 식에서  $\alpha$ 는 절대소비 또는 기초소비의 크기를 표시한다. 절대소비란 생존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비수준을 말한다.  $\beta$ 는 한계 소비성향을 나타낸다.

절대소득가설의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소비지출을 개인가처분소득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에는 한국은행(1974), 양화중(1980), 마기욱(1987), 최배홍(1989), 김영숙(1989)의 연구 등이 있다.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기 위해 절대소득가설의 모형을 사용한 연구로는 최은숙(1986), 마기욱(1987), 최배홍(1989), 김영숙(1989), 김영숙·왕인숙(198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피복소비지출이 당기소득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절대소득가설 모형이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

미국의 경제학자 Dusenberry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소비자 본인의 현재소득은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의 소득과 본인의 과거소득을 중요시하였다. Dusenberry의 이론은 소비가 본인과 타인, 또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성립하는 상대소득의 함수라고 보는 것이다. 피복과 같이 가시성이 높고 상호의존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과거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는 '비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가역성이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단 높아진 소비수준은 소득이 감소해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가역성에 의해 현재의 소비가 과거의 최고소비수준, 나아가 과거의 최고소득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소득이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만 과거에 도달했던 가장 높은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제시하였다.

$$\frac{C_t}{Y_t} = \alpha + \beta \left( \frac{Y_t}{Y_0} \right)$$

$Y_0$ : 과거의 최고소득수준

위 식에서 보면  $\beta$ 가 음의 값을 갖게 됨으로써, 평균 소비성향은 과거의 최고소득에 대한 현재 소득의 비율에 따라 변동하며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소비의 비가역성이 나타나고 있다.

양화중(1980)은 상대소득가설 모형을 우리나라 민간 소비 지출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과거의 소비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소비습관은 소득수준보다 소비수준에 더 잘 반영되고 있다.

### 3)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가설은 생애주기가설과 더불어 인간이 소비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것은 인간의 소비계획이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iedman은 Keynes와는 달리 소비가 당기의 절대소득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치로서의 항상 소득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Friedman은 소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계획을 세우므로 항상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 항상소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부(富)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소득의 현재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항상소비는 항상소득의 일정비율로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국은행(1974), 장오현(1983), 마기욱(1987) 등이 항상소득가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을 설명하였다. 한국은행(1974)은 단기 소비지출이 소득보다도 전기의 소비지출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감소한다 해도 소비지출은 지난해의 소비습관에 따라 매우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장오현(1983)과 마기욱(1987)의 연구결과 역시 단기 소비지출이 소득보다는 전기소비 지출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기욱(1987)은 절대소득 모형에 비하여 Brown의 항상소득 모형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지출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과거의 소비가

현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항상 소득가설 모형은 우리나라의 소비지출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

Modigliani, Brumberg, Ando는 개인의 일생동안의 총효용은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합한 총소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며, 소비지출의 재원이 되는 소득의 흐름은 유년기 및 노년기에 낮은 반면 생산성이 높은 장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는 평생동안 기대되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매기의 소비에 배분함으로써 총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단기적으로자산 소득은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산-소득 비율 및 노동소득 흐름-현재소득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은 일정하다. 생애주기가설은 소비함수에 자산을 명확하게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양화중(1980), 이화연(1993)이 민간소비지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효과를 포함한 소비함수를 측정하였다. 1963~1979년의 민간소비 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자산을 포함시킨 회귀식을 구한 양화중(1980)은 생애주기 가설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지출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화연(1993)은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한 소비함수측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지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였다.

최은숙(1986)은 농가의 비목별 소비지출을 설명하는 횡단적 연구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능가 순자산을 변수로 도입하였으며, 피복소비 지출이 소득은 물론 자산에 의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받음을 밝혔다.

자산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이렇듯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국민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분히 심리적인 것으로서 심리적 자산량은 실제 자산량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Houthakker와 Taylor의 상태조절모형

경제학은 그 분석방법에 따라 정태경제학과 동태경제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태경제학이란 그 상태를 벗

어날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두 균형상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며, 동태경제학은 시간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경제현상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소비가 소득이나 상대가격 이외에도 과거소비 행태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동태적 소비합수를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동태적 소비합수 중 매우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Houthakker와 Taylor(1970)의 상태조정모형(H-T State Adjustment Model)이 있다.

Houthakker와 Taylor의 상태조정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재고량-습관' 효과이다. 즉 재고량 계수에 따라 그 제품이 내구재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제품인지 아니면 습관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소비'를 재화의 획득에서부터 사용과 폐지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라고 할 때, Houthakker와 Taylor의 모형은 시계열 자료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고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Houthakker와 Taylor(1970)는 1929~1941년, 1946~1964년의 미국 1인당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과 1인당 개인소비 지출을 이용하여 피복소비 지출의 재고량 계수를 추정한 바 있다. 그들은 전기의 피복소비지출과 전기 1인당 개인소비 지출, 1인당 개인소비지출의 변화율 회귀식에 포함시켜,  $-0.149$ 의 재고량 계수를 얻었고, 따라서 피복은 재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내구재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당기 총지출의 증가가 피복소비지출을 늘리면서 피복재고를 증가시키지만 늘어난 재고는 다음시기 구매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Winakor(1989)는 Houthakker-Taylor의 모형을 이용하여 1929~1941년, 1946~1986년의 같은 미국 소비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피복의 재고효과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0.0327$ 의 재고량 계수가 얻어졌고, 이는 분석에 새로 포함된 기간인 1964년에서 198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미국인의 피복 소비행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미국의 소비자들이 더이상 피복을 내구재로 보지 않으며 피복소비지출이 습관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상목(1980)이 1963~1977년 사이의 민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비목별 Houthakker-Taylor의 모형의 재고량 계수를 추정한 바 있

다. 그가 추정한 피복 재고량 계수는  $0.0847$ 로서, 우리나라 소비자에 있어서 피복은 습관적 소비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상품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재고량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습관적 소비의 대표적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연초의 재고량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Houthakker와 Taylor의 모형을 사용하여 피복소비지출의 재고량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이 피복보유 재고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절차

#### 1. 연구문제 기술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합수론을 도입하여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고, 피복소비지출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한다.

연구문제 2: 피복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 가격탄력성과 재고량 계수를 구하여 피복이 소비대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힌다.

연구문제 3: 피복의 중분류군별 소비합수를 구하여 각 피복품목별 소비지출의 특징을 밝힌다.

#### 2. 이용자료 설명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피복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들을 사용하였다(정수진, 1996).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국민계정'의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자료이다. 이는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총제소비지출이 추정된 거시경제현상에 관련된 자료라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로, 표본가계를 추출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여 작성되는 자료이다. 이는 개별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반영된 미시 경제현상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다.

<표 1> 분석모형 및 변수(모든 변수는 1인당 불변가격환산치임)

이론적 배경	연구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절대소득가설	$C_t = \alpha + \beta Y_t$	피복소비지출 ( $C_t$ )	모형 1 : 개인가처분소득 ( $Y_t$ ) 모형 2 : 민간소비지출 ( $Y_t$ )
항상소득가설	$C_t = \alpha Y_t + \beta C_{t-1}$ $C_t = \alpha + \beta Y_t + \gamma C_{t-1}$	피복소비지출 ( $C_t$ )	개인가처분소득 ( $Y_t$ ) 전기피복소비지출 ( $C_{t-1}$ )
생애주기가설	$C_t = \alpha YL_t + \beta A_t$	피복소비지출 ( $C_t$ )	피용자보수 ( $YL_t$ ) 금융자산잔액 ( $A_t$ )
상대소득가설	$\frac{C_t}{Y_t} = \alpha + \beta \left( \frac{Y_t}{Y_0} \right) + \gamma \left( \frac{C_{t-1}}{Y_{t-1}} \right)$	피복의 평균 소비성향 ( $C_t/Y_t$ )	과거최고소득에 대한 현재소득 ( $Y_t/Y_0$ ) 전기피복평균소비성향 ( $C_{t-1}/Y_{t-1}$ )
Houthakker-Taylor의 상대조정모형	$C_t = A_0 + A_1 \Delta Y + A_2 C_{t-1} + A_3 Y_{t-1}$	피복소비지출 ( $C_t$ )	전기피복소비지출 ( $C_{t-1}$ ) 전기민간소비지출 ( $Y_{t-1}$ ) 민간소비지출 변화 ( $\Delta Y$ )

3. 분석모형 및 변수 선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각 모형은 기존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며, 모형의 적합도와 변수의 유의도에 따라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함수 모형이 도출될 것이다.

1) 소비함수 모형 및 변수

소비함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모형 및 변수는 <표 1>과 같다.

표본조사인데다가 표본추출 방법도 자주 바뀌는 '도시가계연보' 자료에 비하여 대체로 시계열적 연속성이 보장되고 가처분 소득자료가 이용가능한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각 모형을 분석한 후, 모형의 유의도가 높은 모형에 한하여 기간별 소비함수와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행해졌다.

기간별 소비함수의 분석을 위한 기간의 분류는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에서 추세변동을 제거한 잔차에 대한 잔차도를 그려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의 변동 요인은 점진적인 장기운동을 나타내는 추세변동과 3년 내지 10년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순환변동,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계절변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년을 단위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계절변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소득가설 모형에 대해서 피복소비지출을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고 남은 잔차가 순환변동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피복소비지출의 순환주기에 따라 첫번째 기간은 1965년부터 1977년까지, 두번째 기간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세번째 기간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도시가계연보' 자료의 경우는 1993년까지)로 분류하였다.

2) 소득탄력성 및 가격탄력성 측정모형

피복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tone(1957) 이후 비무별 가격과 소득탄력성의 측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온 양대수형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정식은 계수에서 직접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ext{모형 : } \ln C_t = \alpha + \beta \ln Y_t + \gamma \ln P_t$$

$C_t$  : 피복소비지출  $Y_t$  : 소득변수  $P_t$  : 피복의 상대가격

위의 모형에는 소득변수와 함께 가격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수요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소득과 가격변수를 모형에 같이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상대 변수를 통제된 후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이 모형과 같은 모형으로 피복의 탄력성을 측정 한 선행연구로는 최은숙(1986)과 서상목(1980)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탄력성은 소득 및 가격의 변화가 피복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피복의 제품특성을 밝히게 될 것이다.

IV. 피복비 소비함수 및 탄력성

1. 소비함수론에 입각한 피복소비함수

여기에서는 각 소비함수론 모형을 피복소비 지출의 경우에 적용시키고, 모형의 적합성을 밝히기로 한다.

<표 2> 기간별 절대소득모형 회귀결과

분석모형:  $C_t = \alpha + \beta Y_t$

기 간		개인가처분소득모형				민간소비지출모형			
		$\alpha$	$\beta$	reg R <sup>2</sup>	D.W.	$\alpha$	$\beta$	reg R <sup>2</sup>	D.W.
1965 1977	B	-5.9398	0.0614	0.9581	1.3957	-45.6058	0.1243	0.9826	1.7524
	t	(-1.055)	(12.043)			(-9.875)	(23.626)		
	p	0.3106	0.0001			0.0001	0.0001		
1978 1984	B	131.2157	-0.0173	0.1691	1.5650	170.6391	-0.0554	0.7223	1.5776
	t	(2.080)	(-0.558)			(6.080)	(-2.657)		
	p	0.1060	0.6063			0.0037	0.0566		
1985 1992	B	29.3983	0.0227	0.9799	0.9340	22.7953	0.0404	0.8821	1.0412
	t	(3.766)	(9.200)			(1.068)	(3.791)		
	p	0.0131	0.0003			0.3344	0.0127		

소비는 기본적으로 개인단위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각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1인당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1) 절대소득가설

‘국민계정’에 나타난 민간소비지출 중 1인당 불변의 복 및 신발 소비지출( $C_t$ )을, 독립변수로는 1인당 불변 개인 가처분 소득( $Y_t$ )을 이용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 = 38.0498 + 0.0227 Y_t$$

$$t = (6.474)^{***} (8.531)^{***}$$

$$R^2 = 0.7368 \text{ F 값} = 72.778^{***} \text{ D.W.} = 0.123 (***) p < .0001$$

위 결과의 R<sup>2</sup>와 t값, F값 등을 살펴보면 각 변수의 유의도와 모형의 적합도 및 유의도가 상당히 좋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Durbin-Watson 통계량이 0.123으로 나타나 잔차에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함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차과정을 고려한 경우의 한계소비성향은 0.0269로 오차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0.0227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드러내었다. 이는 당기의 개인가처분소득이 1000원 상승할 경우 이 소득상승의 영향으로 피복비는 27원 정도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소득가설 모형에서 상수항은 기초소비량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양인 것이다. 회귀결과는 0.000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기초 소비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이론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소득이 피복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분석 기간을 3기간으로 나눈 후 각각의 기간에 절대소득가설 모형을 적용시켜 보았다. 각 기간은 1965~1977년, 1978~1984년, 1985~1992년으로, 기간별 절대소득 모형 회귀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우선 두 번째 기간인 1978~1984년 사이의 피복소비 지출이 당기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기간은 1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복소비 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있는 기간으로서, 같은 기간 개인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지출은 증가율이 약간 낮아졌을 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피복소비 지출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민간소비지출 회귀모형의 경우 이 기간의 피복소비지출은 민간소비지출과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민간소비지출에 있어서의 피복비의 급격한 비증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는 이 기간중에 소비자는 소득의 증가분은 물론 그동안 피복소비지출에 사용했던 지출비용까지 다른 비목으로 돌려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기침체기의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불경기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소득의 실제적인 증감과 관계없이 피복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소득변화나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와 예상이 피복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965~1977년까지의 기간과 1985~1992년 까지의 기간의 회귀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소득계수의 유의도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마기옥(198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의 전반적인 수준은 향상하고 있으나,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증가의 효과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상대소득가설

Du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모형을 '국민계정'의 피복소비 지출 자료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rac{C_t}{Y_t} = -0.007106 + 2.8020 \left( \frac{Y_t}{Y_0} \right) + 0.9582 \left( \frac{C_{t-1}}{Y_{t-1}} \right)$$

$$t = (-2.109) \quad (2.278) \quad (17.533)$$

$$p = (0.0456) \quad (0.0320) \quad (0.0000)$$

$$\beta = \quad \quad 0.1185 \quad 0.9123$$

$$\text{reg } R^2 = 0.9499 \quad D.W. = 1.9699 \quad F \text{ 값} = 227.52$$

$C_t$ : 1인당 불변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Y_t$ : 1인당 불변 개인 가처분소득

$Y_0$ : 과거 최고 소득

$t$ : 시간

$t-1$ : 전년도

회귀식의  $R^2$  값과  $F$  값, 각 계수의  $t$  값, Durbin-Watson 통계량 모두 이 회귀식이 적합함을 알려준다.  $\beta$  값에 의하면 전체 소득에서 피복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C_t/Y_t$ )은 바로 전년도의 피복비 비중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설명된다. 그러나, 원래 Dusenberry의 모형에서는 과거최고 소득에 대한 현재소득의 비율( $Y_t/Y_0$ )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과거 최고소득에 비해 현재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 소비는 소득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복소비 지출의 소비성향을 종속변수로 한 위의 회귀결과에서는  $Y_t/Y_0$ 의 계수가 양수로 나타났으므로, 과거의 최고소득에 비하여 현재소득이 증가하면 피복소비 성향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피복소비 성향도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소비는 소득이 감소하여도 과거의 소비수준에서 쉽게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소비의 '비가역성'은 피복소비 지출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Winakor(1993)는 만약 상대소득 가설이 과거의 피복소비 지출에 적용된다고 해도 상대소득의 효과는 최근 적어지고 있으며, 피복소비 지출은 당기소득에 민감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전체 소비 지출에 대한 피복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도 소비의 비가역성이 피복소비 지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위의 결과에 의하면 피복 소비성향은 과거의 소비성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최고소득에 비해서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피복비 소비를 증가시키고 현재소득이 감소하면 피복비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피복비 소비지출이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소득과 소비의 균형관계를 맞춰주는 조절비목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 3) 항상소득가설

Friedman과 Brown의 식을 이용하여 항상소득모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각 변수의  $\beta$  값에 의하면 피복소비 지출은 바로 전기(前期)의 피복소비지출에 의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Hall의 랜덤워크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Hall(1990)은 소비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하여 소비계획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소비계획을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복소비지출은 바로 전기의 피복소비 지출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Hall의 랜덤워크 가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연구로는, 이화연(1993), 황상하(1994) 등이 있으며,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지출은 Hall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과거의 소비지출에 의하여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Hall(1990)은 또한 소비자는 전기 소득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당기소득은 소비자의 소비계획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Brown의 모형은 당기소득이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는데 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복소비 지출에 있어 당기소득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항상소득 가설 모형은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을 때, 1985~1992년 사이의 기간에서는 전기소비 지출의 영향력이 개인 가처분 소득의 영향력보다 약간 크게 나타난다. 역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생애주기가설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기 위하여 Modigliani, Brumberg, Ando의 생애주기 가설을 적용시켜 회귀분석하였다.



$$C_t = 0.0395 YL_t + 0.004659 A_t + \hat{\varepsilon}_t$$

$$t = (1.636) \quad (0.343)$$

$$p = (0.1143) \quad (0.7341)$$

$$\hat{\varepsilon}_t = 0.9846 \hat{\varepsilon}_{t-1}$$

$$\text{reg } R^2 = 0.4308 \quad \text{total } R^2 = 0.9958$$

$$\text{D.W.} = 1.3105$$

YL<sub>t</sub>: 1인당 불변 피용자 보수

A<sub>t</sub>: 1인당 불변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산의 효과를 가정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된다. 생애주기 가설이 전체 소비지출과 자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소비지출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의 재산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리라 여겨지지만, 피복소비지출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의 8~10% 정도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유재산까지 고려해서 피복소비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민간소비 지출에서 자산의 효과를 고려한 분석을 행했던 이화연(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지출에 대한 자산의 영향력은 미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농가의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함에 있어 자산변수를 도입했던 최은숙(1986)은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자산의 유의한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각 소비자의 자산과 피복소비 지출을 얻을 수 있었던 자료의 특성에 의해 자산의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개인들간의 자산의 비교 효과가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체 국민 자산의 변화를 변수로 채택한 본 연구의 경우에는 단순한 국민재산의 증감만을 파악한 것으로서, 횡단적 연구에 있어서는 자산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종단적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결과는 피복소비 지출에 있어서 자산의 절대적 수준 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5) Houthakker와 Taylor의 상대조정 모형

'소비'를 획득에서 사용, 폐지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Winakor, 1969; Magrabi 등, 1991)이라고 볼 때, 피복 사용과 폐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시계열 자료 분석에 있어서 Houthakker와 Taylor의 모형은 의복재고 효과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

과적이다. H-T 모형을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 = 8.2876 + 0.0753 \Delta Y + 0.9216 C_{t-1} - 0.003062 Y_{t-1}$$

$$t = (2.536) \quad (12.123) \quad (2.518) \quad (-0.607)$$

$$p = (0.0185) \quad (0.0001) \quad (0.0192) \quad (0.5496)$$

$$R^2 = 0.9637 \quad F_{값} = 203.594 \quad \text{D.W.} = 1.789$$

C<sub>t</sub>: 1인당 불변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ΔY: (전기 1인당 불변 민간소비지출 - 당기 1인당 불변 민간소비지출)

C<sub>t-1</sub>: 전기 1인당 불변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Y<sub>t-1</sub>: 전기 1인당 불변 민간소비지출

위의 모형에서 전기(前期)소비 지출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어느 정도의 유의성을 가정하고 Houthakker-Taylor의 재고량 계수 구하는 식에 계수를 대입하여 재고량 계수를 구하였다. 피복소비 지출의 재고량 계수는 -0.1214로서, 이것은 소비자가 과거의 구매에서 얻은 재고가 다음 피복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즉 피복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내구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2. 피복소비행태 설명모형

이 절에서는 앞의 여러 모형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추출하여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모형을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기 위한 각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전기 피복소비지출, 당기소득, 소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가격변수의 경우 유의도가 별로 좋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가격은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소비결정 요인이므로 일단 모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가격변수로는 당기의 피복상대 가격과 함께 피복상대 가격의 변화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1)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피복소비 함수

전기의 피복소비지출, 당기소득, 소득의 변화, 피복의 상대가격, 피복 상대가격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는 당기소득으로 1인당 불변개인 가

처분소득을 사용하였는지, 1인당 불변 민간소비지출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두 가지 모형으로 나타낸다.

(개인 가처분소득 모형)

$$C_t = 6.6953 + 0.0405\Delta Y + 0.8931C_{t-1}$$

$$F = (6.25) \quad (22.47) \quad (732.70)$$

$$p = (0.0197) \quad (0.0001) \quad (0.0001)$$

$$R^2 = 0.9749 \quad F \text{ 값} = 465.79 \quad D.W. = 1.545$$

$C_t$  :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

$\Delta Y$  : (전기 1인당 불변 개인가처분소득  
- 당기 1인당 불변 개인가처분소득)

$C_{t-1}$  : 전기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

(민간 소비지출 모형)

$$C_t = 53.8285 + 0.0689\Delta Y + 0.7557C_{t-1} - 34.5391P_t$$

$$F = (6.24) \quad (10.05) \quad (108.74) \quad (4.56)$$

$$p = (0.0201) \quad (0.0043) \quad (0.0001) \quad (0.0435)$$

$$R^2 = 0.9692 \quad F \text{ 값} = 241.51 \quad D.W. = 1.602$$

$C_t$  :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

$\Delta Y$  : (전기 1인당 불변 민간소비지출  
- 당기 1인당 불변 민간소비지출)

$C_{t-1}$  : 전기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

$P_t$  : 당기 피복비 상대가격

위의 두 가지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지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피복소비 지출과 전기 소득과 당기소득의 차이, 그리고 당기의 피복의 상대가격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는 당기 소득자체의 수준보다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피복소비지출을 변화시키며, 주변에서 여러 정보를 받아들여 소비지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소비지출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실제로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의 소비지출이 가장 적당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이용한 피복소비 함수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기 위한 피복 소비 함수를 앞에서 사용된 변수들—전기 피복소비지출, 가계소비 지출의 변화, 당기 가계소비지출, 피복의 상대가격, 피복 상대가격의 변화—을 이용하여 단계별 회귀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C_t = 1.9530 + 0.1310\Delta Y + 0.9180C_{t-1} + 46.8425\Delta P$$

$$F = (2.74) \quad (102.87) \quad (2352.96) \quad (8.04)$$

$$p = (0.1110) \quad (0.0001) \quad (0.0001) \quad (0.0091)$$

$$R^2 = 0.9960 \quad F \text{ 값} = 2008.63 \quad D.W. = 2.301$$

$C_t$  :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

$\Delta Y$  : (전기 1인당 불변 가계소비지출  
- 당기 1인당 불변 가계소비지출)

$C_{t-1}$  : 전기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

$\Delta P$  : 당기 피복비 상대가격-전기 피복비 상대가격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기 피복소비지출과 소득의 변화는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복소비 지출의 소득변화 계수 유의도가 전체 소비자의 경우 보다 크고, 계수 값 또한 커서, 도시 소비자들의 피복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자들에 비해 소득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격변수들 중 가격변화가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을 설명하는 데 보다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었는데, 도시 소비자의 피복 소비가 이처럼 당기소득이나 당기의 상대가격보다 소득이나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피복을 소비할 때 도시 소비자는 절대적 수준의 소득보다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여유 소득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기타 상품과의 가격수준 비교보다는 피복 자체의 가격 변화에 의해 보다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피복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

피복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모형은 양대수형(log-log) 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불변 피복소비지출의 자연대수형을, 독립변수로는 피복 상대가격의 자연대수형과 소득의 자연대수형을 이용하였으며, 소득으로 1인당 불변 개인가처분 소득을 이용했는지 1인당 불변 민간소비 지출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2개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회귀결과 오차의 정적자기 상관이 나타나 회귀모형에 오차과정을 포함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피복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분석모형 :  $\ln C_t = \alpha + \beta \ln Y_t + \gamma \ln P_t$

		$\alpha$	소득 탄력성 ( $\beta$ )	가격 탄력성 ( $\gamma$ )	reg $R^2$	D.W.
개인 가처분 소득모형	B	-1.5160	0.7765	-0.4565	0.7510	1.248
	t	(-1.736)	(6.763)	(-1.321)		
	p	0.0953	0.0001	0.1990		
민간 소비지출 모형	B	-2.4702	0.9461	-0.7171	0.6511	1.322
	t	(-1.780)	(4.881)	(-1.757)		
	p	0.0878	0.0001	0.0917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가처분 소득에 대한 피복소비 지출의 탄력성과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탄력성은 각각 0.7765과 0.9461로서 피복은 비탄력적인 소득탄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개인가처분소득 모형과 민간소비지출 모형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신행연구(Dardis 등, 198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간소비 지출에 대한 피복소비 지출의 탄력성이 개인가처분 소득에 대한 탄력성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탄력성이 두 모형 모두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피복이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대가격 탄력성의 경우에는 두 모형 모두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통계적 설명은 불가하나, 민간소비지출 모형의 경우  $-0.7171$  ( $p=0.0917$ )의 가격탄력성을 보여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피복소비 지출의 경향을 나타낸다. 1보다 작은 피복의 가격탄력성 또한 피복이 가지고 있는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모두 개인가처분 소득보다 민간소비 지출 모형에서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 피복소비 지출은 소득의 변화보다는 소비지출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4. 피복 중분류군별 소비행태 분석

피복 중분류군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변화추이 또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각 피복 중분류군 별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그리고 Houthakker와 Taylor의 재고량 계수를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의 각 피복중분류군별 소비행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1) 피복 중분류군별 소득 및 가격탄력성

각 피복 중분류군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중분류군별 소득탄력성 계수를 살펴보면, 각 중분류군 중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으로 스웨터·셔츠군과 피복 및 신발 서비스군을 들 수 있다. 이 두 군에 대한 소비지출은 소득의 증가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사치재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내외군이나 외외군, 양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피복군, 신발군 등에 대한 소비지출에 비하여 부수

<표 4> 피복 중분류군별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text{분석모형} : \ln C_i = \alpha + \beta \ln Y_i + \gamma \ln P_i$$

중분류군	분석기간		소득 탄력성 ( $\beta$ )	가격 탄력성 ( $\gamma$ )	R <sup>2</sup>	D.W.
외외	1975	B	0.7996	-0.3480	0.7112	1.372
		t	(5.679)	(-0.432)		
	1993	p	0.0001	0.1493		
스웨터 셔츠	1982	B	1.1731	-0.2853	0.9633	1.108
		t	(11.307)	(-0.162)		
	1993	p	0.0001	0.8755		
내외	1982	B	0.7658	-0.6972	0.9657	1.244
		t	(7.693)	(-1.866)		
	1993	p	0.0001	0.0991		
직물 실	1975	B	-0.0767	-2.5885	0.4972	0.852
		t	(-0.263)	(-1.903)		
	1993	p	0.7959	0.0751		
기타피복	1975	B	0.7188	0.2966	0.3380	1.378
		t	(1.751)	(0.324)		
	1993	p	0.1004	0.7505		
신발	1975	B	0.9472	-0.4434	0.9876	1.665
		t	(14.257)	(-1.782)		
	1993	p	0.0001	0.0950		
피복 및 신발 서비스	1982	B	1.1368	-1.2498	0.9878	1.860
		t	(19.390)	(-10.563)		
	1993	p	0.0001	0.0001		

적인 피복 소비지출임을 알 수 있다. 내외의 군이나 외외의 군, 기타피복 군은 1보다 상당히 적은 소득탄력성으로 필수품의 특징을 보여, 피복 품목 중에서도 필수적인 품목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중분류군별 소득탄력성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직물·실 군이 소비지출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측하였던 대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음(-)의 소득탄력성을 가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열등재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각 중분류군별 가격탄력성은 대체로 그 유의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서 전체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의하게 나타난 계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피복 및 신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상당히 유의하면서 동시에 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기간에 걸쳐 피복 및 신발서비스의 상대가격은 상당히 상승하였던 반면, 피복 및 신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은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군이 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복 및 신발 서비스군은 소득이나 가격에 대해서 모두 탄력적인 특징을 보임으로써 사치재에 가까운 소비지출의 특징을 보인다. 피복 및 신발 서비스군 이외에는 내의군과 직물·실군, 신발군이 비교적 유의한 가격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 내의군과 신발군은 비탄력적인 특징을 지니고 따라서 필수품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이에 비해 직물·실군은 매우 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직물·실군이 이렇듯 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갖는 것은 직물·실군이 사치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사회적 취향의 변화로 인해 소비지출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2) 피복 중분류군별 Houthakker와 Taylor의 삼태 조절 모형분석

Winakor(1969)는 피복의 재고중에 있는 품목들 중에는 쉽게 가감되어 전체 재고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복은 품목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각 중분류군별 재고량 계수를 계산함으로써 피복의 각 중분류군의 수명과 내구성, 그리고 각 중분류군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습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고량 계수의 크기에 따라 각 중분류군을 분류해 보면 양말, 스타킹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피복 군이 가장 큰 양(+ )의 재고량 계수를 가지고 있어 습관적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피복군이 이처럼 습관적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기타피복군에 대한 소비지출 중 대부분은 양말, 스타킹과 같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품목들은 자주 사용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소모품으로서, 잦은 구매를 필요로 하는 품목이므로,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구매하게 되며, 폐기도 그만큼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기타피복군 외에 또 습관적 소비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중분류군은 신발군이다. 이 결과는 약간 의외의 결과로서 아마도 신발군 소비지출의 꾸준한 상승추세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 의외군, 스웨터·셔츠군, 내의군, 직물·실군,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서비스군의 경우 모두 음(-)

의 재고량 계수를 나타내어 내구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피복 및 신발에 대한 서비스군이 내구재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내구성이 있다기 보다는 그다지 습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비지출을 보이는 품목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전체 소비지출에서 피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1978년을 정점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피복비 비중의 감소추세는 피복의 비탄력적인 소득·가격탄력성과, 대량생산기술 발달로 인한 피복가격하락, 잉여 소득 증가에 따른 피복비 비중감소, 전체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지출비목의 등장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피복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여러 소비함수 모형을 적용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대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의 모형은 피복비 소비지출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소비 지출의 절대소득 모형을 기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그에 비해 피복의 기초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의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피복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피복소비 지출은 전기 피복소비 지출과 소득의 변화, 가격, 가격의 변화 등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피복재고가 피복 획득이나 폐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Houthakker와 Taylor의 소비함수를 피복비에 적용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의 계수에 의하여 피복의 재고량계수를 계산해 본 결과 피복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내구재적 특징을 가지는 소비비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피복의 중분류군별 재고량계수를 살펴보면, 양말과 같은 소모품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피복군과 신발군의 경우 습관적 소비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의외군, 스웨터·셔츠군, 내의군, 직물·실군, 서비스군은 음(-)의 재고량 계수를 나타내 내구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피복이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복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계산해 본 결과, 전체 소비자에게 있어서 피복비 소비지출은 소득과 가격에 대하여 모두 비탄력적인 필수품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도시 소비자의 경우 피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이 소득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별 피복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탄력성의 경우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의 피복비 비중 감소추세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에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이 밝혀졌다. 가격탄력성의 경우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유의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양(+)<sup>1)</sup>의 값을 갖는 가격탄력성을 보여 피복에 있어서의 과시적 소비현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복 중분류군별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스웨터·셔츠 군과 피복 및 신발 서비스군이 소득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비스군의 경우 가격탄력성도 1보다 크게 추정되어 사치재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해 직물·실군은 음(-)의 소득탄력성을 보여 열등재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의의군, 내의군, 기타피복군, 신발군 등은 기본적인 피복품목들로서 비탄력적인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필수재의 특징을 지닌다.

Houthakker는 소비자의 행동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순진한 관점'에 불과하며,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의 소비의 경우에는 그 방향은 반드시 존재하며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피복에 대한 소비지출의 추세를 파악하고 그 변화들 주로 소득과 가격의 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복소비 지출에 대한 가격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상품과의 가격수준 비교와 함께 피복가격 자체의 변화가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양(+)<sup>2)</sup>의 가격탄력성이 나타남으로써 요즘 소

비자들의 피복에 대한 과시적 소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피복은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있어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소비비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복의 재고는 피복 구매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이므로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소비 행태는 습관적 소비라기 보다는 피복을 내구재로서 보는 소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피복 소비지출은 당기소득의 수준보다는 여유소득의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비자는 소비의 효율성 극대화 활동에 의해 피복소비 계획을 세움으로써 당기의 피복소비 지출은 소득이나 가격보다는 전기의 피복소비 지출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도시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의 경우 역시 전기 피복소비 지출과 여유소득 증가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상품의 가격수준에 대한 피복가격 수준의 상대가 격보다는 피복자체의 가격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본 연구는 전체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 변화를 살펴 보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경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소비함수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또한, 소득과 기타 인구통계·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공선성 문제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체 인구통계적 구조나, 사회적 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런 변화가 피복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전체 사회의 구조변화와 인구통계적 변화들 대표할 수 있는 마땅한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복의 소비지출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양태를 여러 모형을 통해 경제적 요인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한 피복 소비의 현황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안목은 차후 미래의 국내의 패션 산업의 방향을 이끌어갈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영숙(1989).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숙, 왕인숙(1989). 도시 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마기욱(1987). 민간소비 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목(1980). 민간소비 지출 형태의 분석. 한국개발연구, 2(1), 126-145.
- 양화중(1980). 소비결정에 관한 주요가설의 실증적 비교 분석. 조사통계월보, 12월, 15-26.
- 이화연(1993). 우리나라 소비의 결정요인 분석 - VAR 모형과 오차수정 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오현(1983). 한국소비함수의 추정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5(4), 136-151.
- 정수진(1996).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와 그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배홍(1989). 한국의 가계 소비구조 변화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1986).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은행(1974). 우리나라의 소비동향과 그 결정요인. 조사월보, 9월, 34-53.
- 황상하(1994). 한국의 소비함수 추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ardis, R., Derrick, F. & Leheld A. (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2.
- Hall, R.E. (1990). Stochastic Implications of the Life Cycle -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In Hall, R.E. *The Rational Consumer: Theory and Evidence*. Cambridge: The MIT Press.
- Houthakker, H.S. (1992a). Are There Laws of Consumption? In Philips, L. & Taylor, L.(eds.) *Aggregation, Consumption and Trade*. Netherlands: Klumer Academic Publishers.
- Houthakker, H.S. (1992b). Proposed Technique for Estimating Demand Functions from Time Series. In Philips, L. & Taylor, L.(eds.) *Aggregation, Consumption and Trade*. Netherlands: Klumer Academic Publishers.
- Houthakker, H.S. & Taylor, L.D. (1970). *Consumer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nalyses and Projections.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H.Y. (1988). Market Share Analysis of Major Textile Fib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ryland.
- Magrabi, F.M., Chung, Y.S., Cha S.S. & Yang, S.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 Winakor, G. (1962). Consumer Expenditures for Clothing in the United States, 1929~1958. *Journal of Home Economics*, 54(2), 115-118.
- Winakor, G. (1969). The Process of clothing Consum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1(8), 629-634.
- Winakor, G. (1989). The Decline in Expenditures for Clothing Relative to Total Consumer Spending. 1929~1986.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195-215.
- Winakor, G. (1993). Analysis of Clothing Expenditures Data: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used in Engel Curves. *ITAA Special Publication No. 5*, 172-184.
- Winakor, G., MacDonald, N.M., Kunz, G.I. & Saladine, K.B. (1971). Clothing Budge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5), 354-362.